

## 왕국의 복음

누가복음 4:42-44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는 데 그토록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을까요? 이 설교에서 R.C. 스프로울 목사는 누가복음 시리즈를 이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고 그리스도의 구원 메시지와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인 관계를 설명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누가복음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4장 마지막에 이르렀는데, 저는 누가복음 4장 42-44 절의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성서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은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군중이 그분을 찾아와서 그분께로 와서 그분이 떠나지 못하게 막으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으므로 다른 도시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한다." 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갈릴리의 회당에서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성령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그분의 영의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방금 들은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이시자 구세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그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 하나님의 왕국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고향을 방문했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디저트를 준비해 놓고 학생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저를 따로 불러서 "알씨,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말해봐요"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라는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묶는 주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실타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말씀하신 경우가 몇 차례 있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때때로 다른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그 개념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은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은 빌라도에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함이며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4장에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고 설득하려 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가야 한다. 내가 다른 도시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데, 이 일을 위해 내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내가 온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왕국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가 세 가지 다른 범주로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첫 번째 방식은 특정 문학 장르, 즉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전기적 정보를 제공하는 네 권의 책을 설명할 때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 또는 "좋은 선포"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유앙겔리온에서 유래했습니다.

신약성서, 특히 사도행전에서 복음이라는 용어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처음 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관련이 있으며, 둘째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혜택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첫 번째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도시에 전해야 하는 이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느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해 의아한 점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며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물을 만드신 바로 그 순간부터 그분의 피조물을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므로 하나님은 태초부터 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도시에 전파해야 할 이 왕국의 새로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 유다의 사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왕국의 새로운 점을 이해하기 위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몇 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한 기록이 있는 창세기 49장을 살펴봅시다. 물론 우리는 큰 축복이 장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8-12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이 찬양할 자이다;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에 닿을 것이다;  
 네 아버지의 자손들이 네 앞에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의 새끼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먹이에서 올라갔다.  
 그는 절을하고 사자처럼 누워 있습니다;  
 사자처럼 누웠으니 누가 그를 깨우랴?  
 홀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발 사이에서도 법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에게 백성의 순종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묶고,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고  
 그는 포도주로 옷을 씻었고  
 포도의 피로 옷을 씻으셨네.  
 그의 눈은 포도주보다 더 어둡고,  
 이빨은 우유보다 희고

홀은 무엇입니까? 홀은 왕의 지팡이입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언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의 왕이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불론, 르우벤, 갓, 납달리, 잇사갈, 또는 다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유다를 통해 오실 것입니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사자"로 알려질 왕을 약속하십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예를 들어 승천 노래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 오실 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왕국은 왕이 통치하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지리적 경계와 국경, 왕이 통치하는 영역의 관점에서 이해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역, 땅, 지리, 지리적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경적 범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는 곳도 탁월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속받은 자들의 영역이며, 왕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의 사회입니다. 약속된 메시아는 왕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사장적 사역을 통해 백성들을 구속하실 왕이십니다.

## 두루마리를 펼치기에 합당함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한 계시록의 친숙한 구절 중 하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에서 요한은 밧모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걷어내어 요한이 하늘의 법정인 골방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요한은 심판의 책이 준비되어 있는 장엄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5장 첫머리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안쪽과 뒷면에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루마리는 너무 단단히 봉인되어 있고 너무 촘촘히 묶여 있어서 누구도 두루마리를 열어 책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요한은 "그때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 궁정 전체에 모든 천사들과 천사장들이 모인 가운데 한 천사가 일어나서 "누가 이 책을 와서 뚫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발표를 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언덕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구약성경에서 시편 기자가 말한 방식입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나 이 책을 여는 데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누가 이 책을 열 자격이 있을까요? 그런 다음 우리는이 슬픈 말을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도, 땅에 있는 자도, 땅 아래 있는 자도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없었습니다."

천사의 질문을 들었을 때 요한은 매우 흥분했습니다. 요한은 휘장 너머로 하늘을 들여다보며 누군가 움직여서 두루마리를 펼치려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실망에 휩싸여 "그래서 많이 울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두루마리를 펴서 읽거나 심지어 그것을 볼만한 합당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다윗의 뿌리인 유다 지파의 사자가 승리하여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일곱 봉인을 풀었다.'" 다시 말해,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의 사자는 이 봉인을 떼어내고 이 두루마리를 열어 그 안에 담긴 모든 말씀을 볼 자격과 능력이 있으니 울지 마세요. 유다의 사자가 승리했습니다." 요한이 계속합니다: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졌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져갔습니다." 요한이 바라보았습니다. 장로들은 "유다의 사자가 이겼으니 울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사자를 찾았지만 사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만 있었습니다. 유다의 사자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왕은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야곱이 꿈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바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유다 지파에서 온 이분이 승리할 때가 왔습니다.

"그분이 두루마리를 가지셨을 때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그릇을 가졌는데, 이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 장면은 하늘에서 펼쳐지는데,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은 수금을 바벨론의 나무에 걸어 두는 대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려놓고,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그릇,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향 그릇을 가져와 그분 앞에 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다:

"당신은 두루마리를 가져 가기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그 봉인을 열기에 합당합니다;  
당신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 구속하셨습니다.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나이다;

우리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내가 보니, 보좌 주위에 있는 많은 천사들과 생물들과 장로들의 목소리가 들리니, 그 수가 만 배 만 배요, 수천 배라 큰 소리로 말하더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합당하다.

권세와 부와 지혜를 받기에 합당하다,

힘과 명예와 영광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축복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보좌에 앉으신 분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어린양에게 세세토록!"

최근에 오랫동안 합창단원이었던 한 여성의 추모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추모예배가 끝날 때 우리 합창단은 모두 함께 서서 할렐루야 합창을 불렀습니다: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 할렐루야."

이 노래는 하늘의 천사들에게 주어진 노래입니다:

축복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게

그리고 어린양에게 영원토록!

## **예수님은 지금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가버나움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고 완전하며 완전한 미래의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완전히 실현되고 완성되었다고 믿습니다. 두 집안 모두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완전히 미래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발표 중 하나 인 우리 왕이 오셨고, 하늘로 승천 하셨고, 대관식에 가셨고, 왕의 왕과 주님의 주님으로 왕관을 쓰셨다는 소식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 왕의 통치는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통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사자가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이 다시 오시면 모든 무릎이 자의든 타의든 그분께 복종하여 무릎을 꿇을 때까지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매일 신문을 읽고 대통령, 부통령, 상원, 하원 등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모든 최신 여론조사와 토론을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합니다. 백악관에 누가 앉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 열중합니다. 근시안적으로 보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친애하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백악관에 누가 앉느냐가 아니라 백악관 위에 누가 앉느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의 요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분의 탄생, 그분의 사역, 그분의 삶, 그분의 변화, 그분의 속죄의 죽음, 그분의 죽음에서 부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승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분의 회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회기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회기는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보좌에서 아버지께서 그분께 주신 왕국을 다스리는 때입니다. 그 왕을 믿는 모든 사람, 그분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모든 사람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구원의 충만함을 지금 그리고 영원히 경험합니다. 보라, 유다의 사자가 승리했으며 하나님의 어린 양은 지금과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통치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왕, 우리의 위대한 왕, 우리의 목자 왕, 우리의 제사장 왕, 우리의 사자 왕, 당신의 왕국에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구원하시는 어린 양 왕께 감사드립니다. 아멘.